

이용섭·김영록 “허심탄회하게 만났다”

1년3개월만에 배석자 없이 2시간 비공개 회동 군공항 이전·혁신도시 발전기금 등 현안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회를 앞두고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만나 의기 투합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갈등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 꼬여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상생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모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배석자 없이 2시간 가장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시·도지사는 비공개 회담을 통해 실무협의안대로 상생 과제를 추진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회담 직후 김 지사가 전남 내용을 토대로 “허심탄회하게 만나 의견을 교환했고 분위기가 참 좋았다. 상생과제는 실무협의안대로 잘 처리해 가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와 전남이 큰 간극이 있는 것처럼,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비추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자주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고 했다”며 “군 공항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줄지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검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의 비공개 단독 만남은 지난해 8월 민선 7기 첫 광주 전남상생발전위원회 이후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포용하며 ‘통큰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나 공동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은 광주와 전남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전남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선 7기 두 번째 상생발전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시장과 김 지사, 시·도 자문위원, 실무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기존 광주전남 상생발전 24개 과제와 새로 추진할 신규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상생발전위를 앞두고 시·도지사가 허심탄회하게 만나면서 전폭 꼬여있는 공동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개소식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광주 동구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에서 열린 금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4겹으로 침출수 차단”...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최우수 사업장’

환경부,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호평’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이 ‘2019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전국의 공공생활폐기물처리시설 679개 사업장(매립 189곳, 소각

172곳 등)을 대상으로 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은 시설 및 운영분야 등 34개 세부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위생매립장은 2005년부터 광주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하루 평균 648톤 매립하고 약 15cm 두께로 복토해 악취 등을 예방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립지 사면에 4겹으로 차수막 시설을 설치해 침출수 유출을 차단하는 등 매립장 운영·관리를 잘했다고 평가했다.

또 광역위생매립장 유량조 상부와 주차장에 28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다양한 이익을 창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일 호남 최대 의료 화장품박람회 개최

DJ센터서 광주메디헬스산업전

호남지역 최대 의료·화장품박람회인 ‘2019 광주메디헬스산업전’이 22일부터 24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광주시가 글로벌 메디시티 도약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던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를 ‘광주메디헬스산업전’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체의료용 소재부품, 광의료 등 지역 육성산업 기반 기업과 아시아 최대 규모 치과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한 조선대학교 국제치매연구단, 마이크로의료로봇 분야에서 세계적 일선기술을 보유한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등이 참여해 첨단기술을 선보인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헬스케어&화장품·뷰티, 고령친화용품 등을 생산하는 143개 기업이 36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 의료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초청 바이어 등 13개국 45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와 국내 의료기관, 대기업 구매 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함께 열린다.

시는 광주메디헬스산업전이 호남권 대표 메디컬, 헬스케어 관련 산업전으로 외연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스 222-5547

■세무기장·조정 ■법인설립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보험료	급여	비율
240,833원	125,531원	1.1배
79,147원	137,147원	1.7배
48,103원	103,103원	2.1배
26,697원	141,697원	2.7배
104,062원	183,961원	1.77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동구, 제5회 실버문화 페스티벌 개최

광주 동구가 20일 어르신 실버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제5회 실버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취미·여가프로그램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버동아리 20개 팀 어르신 4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팀은 공중무용을 비롯해 국악, 스포츠댄스, 합창, 장구춤, 우리춤, 하모니카, 검도, 난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서구, 민관복지인 체육한마당 성료

광주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공동위원장 장현)와 광주 서구가 지난 19일 민관복지인 체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빛고을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서구 관내 민간복지기관 종사자와 18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복지인 체육한마당은 서구 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관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민관복지 활동가들의 사기진작과 기관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자리다.

남구, 택배 사칭 범죄 예방 안심 보관함 확대

광주 남구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첫 선을 보인 ‘안심 택배 보관함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구는 20일 “홀로 사는 여성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택배기사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남구청 분청과 사직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 안심택배 보관함을 마련,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전국적으로 방문 택배를 가장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택배 물건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1,130만원 가량을 투입해 남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와 사직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심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다.

북구, 좋은이웃 밝은동네 대상 수상

광주 북구가 “20일 14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방송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좋은이웃 밝은동네’ 시상식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살맛나는 고장 만들기, 이웃사랑 실천과 단체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대상을 수상한 북구의 용봉마을공동체는 18개 공동체가 협치를 통해 마을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포용적 자치모델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부터 매년 마을총회를 개최해 5개년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클린 마을 프로젝트, 마을 주치관 해소 등 5대 핵심의제를 실천해 왔으며 주민이 손수 조성한 소통 공간인 ‘곳간’ 활성화회를 통해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 스스로 변화하는 생활자치의 저력을 보여 왔다.

광산구, 부동산지적 현장민원실 민원 579건 처리

광주 광산구가 올해 2월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농촌 5개동을 순회하며 실시한 ‘행복광산 부동산지적 현장민원실’이, 총 579건의 민원을 해결하며 마무리됐다.

광산구의 부동산지적 현장민원실은, 도시의 팽창과 개발 수요 증대에 따라 농촌동인 임곡·동곡·삼도·분량·평동의 지적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실시된 것. 특히, 8명으로 구성된 현장민원실 실무자들은, 공직자를 비롯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세무사 등 민간 전문가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임행택 기자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